

수산물 명칭 속에 나타난 잔존일본어에 관한 연구*

양 민 호**

(e-mail :minhojinsei@gmail.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조사결과 |
| 2. 분석개요 | 3.1. 2010년 조사 분석 |
| 2.1. 분석 자료 | 3.2. 2011년 조사 분석 |
| 2.2. 분석 내용 | 3.3. 2012년 조사 분석 |
| | 4. 나오며 |

キーワード：民族生活語調査 (Everyday Korean Language Project), 水産物 (Aquatic products), 漁村 (Fishing Village), 言語接触 (Language Contact), 基層文化 (Basic culture), 殘存日本語 (Remaining Japanese)

1. 들어가며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어촌에서 사용되는 말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민호(2018)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촌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섬나라 일본으로부터 수산 관련 어휘를 비롯하여 어촌생활 관련 일본식 표현이 대거 유입되었다.

특히 어촌의 생활과 문화를 담고 있는 말 중에 일본어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륙으로 막힌 중국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과 바다로 둘러싸인 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일본어학(해역언어학)

양국가 일본이 삶의 터전의 일부로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유하기도 수월했을 것이다. 어쨌건 우리의 어촌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된 어휘와 표현에 일본어투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어촌생활 속 일본어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사자료는 아니지만,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사업단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반도의 동해, 서해, 남해, 제주해의 어촌생활어를 조사하였다. 이 자료 속에 드러난 어민들의 생활 어휘 속에는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잔존일본어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촌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본’ 또는 ‘일본어’라고 언급한 어휘들은 유형별 구분이 가능하며 양민호(2018)에서는 수산물을 제외하고 어촌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부 어휘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획물 중 특히 수산물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 사례를 분석토록 하겠다.

2. 분석개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국립국어원 ‘어촌생활어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민족생활어 자료에는 제보자(조사대상자)의 구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일본어들이 근대 한국의 어촌생활 속에 침투되어 있는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언어 접촉을 통하여 어떻게 발음과 의미가 변용(變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어촌생활어 속 일본어의 흔적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산물에 관한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 구술 자료가 적격이므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일본어의 흔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물 명칭 모두가 담겨 있지는 않다. 다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논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1. 분석 자료

조사는 대한민국 4개 권역 12개 지점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별 그리고 권역 분류는 다음과 같다.

2010년 조사

동해: 경주 / 서해: 부안, 영광 / 남해: 남해 / 제주해: 비양도

2011년 조사

동해: 강릉, 평창 / 서해: 태안 / 남해: 해남 / 제주해: 우도

2012년 조사

동해: 울릉도 / 서해: 외연도 / 남해: 옥지도, 가덕도 / 제주해: 추자도

이 자료는 실제로 어촌마을에 3대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50~60세 이상의 어촌 경험이 있는 각 지역의 어부와 해녀를 선정하여 토박이 제보자 중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로잡이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제보자는 모두 91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었기에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2.2. 분석 내용

이 조사는 어촌생활어의 다양한 관점에서 묻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부분은 어획물 중에서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에 드러난 잔존일본어 부분이다. 다만 지금까지 민족생활어 조사를 통해 분석된 논문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과 관련된 잔존일본어 분석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오징어(이카), 고등어(사바), 가자미(가레이), 다시마(곤부) 등과 같이 잔존일본어의 수산물 명칭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접촉과 변용으로 인한 해역기층문화 형성에 대해 규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3. 조사결과**3.1. 2010년 조사 분석**

예로부터 수산업은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많은 수산관련 용어들 중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나막스(なまぎ 메기)'와 같이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어라고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 반면에 '아나고(あなご 붕장어)'나 '하모(はも 갯장어)' 그리고 (うなぎ 뱀장어)와 같이 태생부터 일본어임을 아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강제적 언어접촉을 통해 수용되고 정착된 일본어도 있지만 자발적 수용에 의해 현재까

지 사용되고 있는 어휘도 존재한다. 이번 절에서는 자의건 타의건 수산물에 존재하는 일본어의 흔적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제주해 등 4개 권역을 3회의 조사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일본어가 수산물 속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연도별로 채록된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2010년도 조사>

제주 비양도 : 아나고(あなご)짬어 - 바닷장어

경북 경주 : 구시(くし) 가시가 있는 성게를 할머니들이
사리까재미 - 이시가리(いしがり) - 이시가레이(イシガレイ)
야리카(やりいか) - 한치, 창오징어
고이치(로)(コイチ) - 수조기

경남 남해 : 지리매(ちりめ) - 작은 멸치-치리멘 샤코(ちりめんじゃこ)

2010년 조사에서는 주로 제주 해역과 동해안 쪽에서 사용되는 수산물 용어 중에서 잔존일본어가 주로 언급되었다.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지만 제주 비양도에서 봉장어를 가리키는 ‘아나고(あなご)’가 어민들의 구술 자료에 등장하였다. ‘아나고짬어가 요만씩 하얏’이라고 비양도의 제보자는 언급하면서 다른 우나기(뺨장어)나 갯장어(하모)와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북에서는 성게를 ‘안개이’, ‘양장구’라고 부른다. 이는 성게에 대한 경북 방언이지만 할머니들은 성게를 ‘구시(くし)’라고도 말한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성게 모양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일본어로 ‘빗’을 구시(串)라고 하는데 성게의 모양에 빗대어 일본어를 원용한 형태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1> 붉은 성게의 모습

이외에 경북 방언인 ‘사리카재미’는 ‘이시가리(いしがり)’라고 불리는 ‘이시가레이(インガレイ)’의 방언형이다. 하지만 ‘이시가리 (줄가자미)’를 표준어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야리카(やりいか)’는 ‘한치’ 또는 ‘창오징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역시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남해안 명물인 작은 멸치를 가리켜 ‘지리메’라고 하는데 ‘지리멘 차코(ちりめんじゃこ)’의 일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2> 지리멘 차코의 요리 예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잔멸치’를 이와 같이 부르는데 일본어의 혼종 형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조사 자료에서는 ‘아나고’ ‘구시’ ‘지리멘차코’ 등과 같은 잔존일본어를 실제의 구술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구시’와 같이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고 해역기층 어민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계의 일본어 명칭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2. 2011년 조사 분석

다음으로 2011년도 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조사>

강원도 강릉: 아카(あか성계의 종류) 구로(くろ)

충청남도: 아카다이(적돔あかだい), 구로다이(돔의 종류 감성돔 くろだい), 시마다이(しまだい)



<사진3> 아카 : 작은 밤송이 모양 / 구로 : 까맣고 가시가 길고 큼

전년도 조사보다 구술자료 상의 잔존일본어는 적다. 다만 매우 흥미로운 점은 2010년도 조사에서 언급된 성게의 명칭이 형태와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해 쪽 방언 중에는 성게를 ‘구로(까맣고 가시가 길고 큼)’와 ‘아카(작은 밤송이 모양)’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성게의 형태와 색상에서 오는 유사점을 가지고 일본어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카를 바훈 성게 (バフウニ 馬糞海胆) 구로를 무라사키 성게 (ムラサキウニ) 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말뚝성게와 보라성게로 구분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실생활에서는 ‘구로’와 ‘아카’로 단순히 부르고 있다.



<사진4> 시마다이 (돌돔)

또 한국의 서해 충청남도에서는 ‘적돔’과 ‘감성돔’ ‘돌돔’을 가리키는 말로 ‘아카다이’, ‘구로다이’, ‘시마다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돔의 경우 일본어 표현으로 ‘다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모든 해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잔존일본어 표현이다. 2010년도 조사에 비해 구술자료 상 잔존일본어의 종류는 적었지만 성계의 형태와 종류를 구분하는데 일본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잔존일본어의 형태를 채록할 수 있었던 2012년 조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3.3. 2012년 조사 분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3년의 조사 중에서 2012년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지역에서 제일 많은 수산물 관련 잔존 일본어 표현이 보인다. 왜냐하면 2012년 조사에서는 2010년 2011년 조사에 비해 동해의 오징어잡이, 서해의 어로생활, 남해의 채낀기, 송어들이, 제주해인 추자도의 고기잡이 등과 같이 어로행위에 관한 조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 조사>

추자도: 지누(ちぬ) - 감성돔

하마치/하마찌(はまち) - 방어 새끼, 부리 - 대방어

시마다이(しまだい) - 농어목 돌돔

육지도: 난킨사바(南京さば 南京鯖) - 작은 고등어

전갱이 - 아지(あじ) 다시마 - 곤부(昆布)

울릉도: 수루메(スルメ) - 마른오징어

충남 외연도: 아카돔(あか돔) - 적돔, 아카돔으로 통칭

전갱이 - 아지(あじ)

육지도: 고등어 - 사바(さば) 난킨사바(南京さば) - 고등어 작은 것

전갱이 - 아지(あじ)

오징어 - 이카(いか) *이카바리(いか바리)

성게 - 우니(うに)

해파리 - 구러기, 구레기, 구라게(くらげ)

다시마숙성-곤부지메(즈메)(昆布締め)

감성돔-지누(ちぬ)/구로다이(くろだい)

창오징어(야리이카 やりいか)

마른오징어(수루메스ルメ) 돌가자미(이시카리 いしかり)

2012년도 조사에서는 제주해를 비롯해서 모든 해역에서 일본어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특히 감성돔을 가리키는 ‘구로다이 (クロダイ)’는 일본의 규슈 지역 방언인 ‘지누 (ちぬ)’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로 도쿠시마, 후쿠오카, 미야자키 등과 같이 일본의 서쪽 지방 특히 규슈 지방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한국으로 건너와 사용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지리적 근접효과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진5> 지누(ちぬ) 감성돔



<사진6> 아카다이(アカダイ)

돔 (도미) 의 경우는 한국 전역에서 ‘사마다이’, ‘아카다이’, ‘구로다이’처럼 일본어의 형태로 불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카다이’ 역시 충청지역 서해안에서는 ‘적돔’으로 통용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통칭 ‘치다이(チダイ)’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아카다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아카다이’라는 방언

형이 한국에 남아 있는 형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오래된 일본어의 형태가 변방인 한국에 남아 있는 셈이다. 결국 해역언어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잔존일본어의 언어형성 과정을 풀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출세어의 종류인 방어(방어)의 경우, 방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크기에 따라 방어 새끼의 경우 ‘하마치’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하마치와 부리(방어)는 비슷하지만 다르지만 방어보다 떨어지는 생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오징어로 유명한 울릉도의 경우 ‘수루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야리이카(창오징어)’ ‘수루메이카’ 등과 같이 여러 오징어 종류를 장기보존을 위해 말리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제일 좋은 건조오징어는 야리이카를 말린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스루메이카를 말린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모두를 통합한 형태로 말린 오징어는 ‘스루메’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잔존일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7> 수루메(スルメ) : 마른오징어

또 일본어로 ‘사바’는 고등어인데 작은 사이즈의 것을 ‘난킨사바’라고 부른다. 주로 일본어에서는 ‘작고 귀여운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南京(なんきん)’을 붙였다. 그리하여 ‘고등어 새끼’ 등을 가리키 ‘난킨사바’라고 부르는데 옥지도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 전갱이를 ‘아지’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앞서 설명한 ‘야리이카(야리카)’와 같이 오징어를 ‘이카’로 칭하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이카’의 경우 한국에는 ‘이카바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에 의하면 ‘명태바리’라는 어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리(잡이)’가

확장성이 있다 보니 수산물 이름 즉 이카(오징어)에 ‘-바리’가 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에서 복합어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사진8> 야리이카(やりいか) 창오징어)

이와 같은 예 이외에 앞선 조사에서 형태와 외형상의 색깔 명칭으로 불리었던 성게의 이름이 일본식 표준어 표현 ‘우니’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식 발음의 한국식 전이 형태로 만들어진 단어 중에 구라게(クラゲ 해파리)가 있다. 이를 가리켜 ‘구라게’, ‘구레기’, ‘구라기’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발음상 부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방언 형태로 기억하는 조사대상자로 있었다. 또 다시마는 일본어로 ‘곤부(昆布)’라 부른다. 이것 역시 일본어로 사용되는 대표 예인데 특히 ‘곤부지메’라는 다시마로 싸서 숙성시킨 회(회)의 잔존일본어가 구술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마가 특산품인 한국의 남해 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9> 곤부지메(昆布締め 다시마숙성회)

그리고 한국 횃집에서 매우 흔하게 듣는 회 중에 이시가리 (いしか) 돌가재미)가 있다.



<사진10> 이시가리(いしか) 돌가재미)

일반 서민에게까지 친숙한 이 이시가리의 경우 이를 어획하는 어부들과 어민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사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본 자료에서는 남해안 옥지도 쪽 제보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상 수산물 명칭 속에 나타난 잔존일본어를 다음 표와 같이 분류를 할 수 있다.

<표1> 수산물 명칭 속 잔존일본어의 어형

잔존 형태	설명	예시
일본어 원형	일본어 원형 그대로의 발음 및 표기가 남아 있는 형태	오징어→이카 감성돔→지누
일본어 일부	일본어 원형 그대로의 형태지만 단어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지리멘자코→지리메
일본어 축약 및 변형	일본어의 원형을 발음상 또는 표기상으로 오류를 범하여 표시한 형태	야리이카→야리카 구라게→구라기
형태적 유사 등으로 인한 별개 일본어	수산물의 형태 및 색상의 유사성으로 인한 대체 일본어를 적용시킨 형태	성게→구시 성게→아카, 구로

4. 나오며

한국 어촌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며, 어업관련 종사자들의 숫자도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촌생활에 관련된 어휘와 문화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획물 속에 남아있는 일본어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산물 속에 나타난 일본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3차년도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구술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양적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몇 가지 흥미로운 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역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어민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현인 ‘구시’라는 성계의 잔존일본어를 발견
- 잔존일본어의 수산물 명칭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문화 접촉과 변용으로 인한 해역기층문화 형성과정에 대해 규명 가능
- 일본에서 볼 때 변방인 한국에 ‘스루메’ ‘지누’ 등과 같이 오래된 일본어 형태가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잔존일본어를 통해 새로운 학문분야인 해역언어학 연구가 가능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말들이 주로 어부나 어업 관련자들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선창 주변에서 횃집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어 일반 시민이 알고 있는 말도 많았다. 다만 이번 논문에서는 공신력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채록된 데이터 안에서만 찾아 분석하다보니 한정적인 사례에 그쳤다. 향후 이러한 조사들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에서 다이라바(鯛ラバ 도미를 뜻하는 일본어와 고무를 뜻하는 영어의 합성어)와 같은 일본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낚시 밧어로 도구, 어로 행위와 수산물의 명칭 부분 상당수가 일본어와의 접촉을 통하여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그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어촌생활 속 어휘 조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미래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어촌 생활에 대한 문화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해역언어학과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향후 다양한 제보자들로부터의 인터뷰와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2017)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이출(輸移出) 동향」 『역사와경계』 103, pp.245-297.
- 김영운, 김용복(2002) 「어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에 관한 실태 조사(I)」 『수산해양교육연구』 14(1) pp.79-94.
- 김영운, 김용복, 김종화(2010) 「어선에서의 일본식 용어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II)」 『수산해양교육연구』 22(1) pp.1-10.
- 김지숙(2015) 「동해안 어촌 생활어에 나타난 바람 명칭 명명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71 pp.5-44.
- 양민호(2018) 「어촌생활어 속에 나타나는 잔존 일본어에 관한 연구」 『동북아해역과 인문네트워크』, 제1회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소명출판.
- 梁敏鎬(2008) 外來語の使用実態に関する社会言語学的な研究 『일본어문학』 37, pp.113-133.
- 홍기욱(2011) 「경남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연구」 『한민족어문학』 58, pp.273-299.
- _____ (2013) 「바다 생물어 명명 기반 연구」 『어문학』 122, pp.321-344.

<이미지 자료 출처>

민족생활어 이미지 자료집

<https://www.walkerplus.com/trend/matome/article/113347/>

<https://ja.wikipedia.org/wiki/%E3%82%AF%E3%83%AD%E3%83%80%E3%82%A4#/media/%E3%82%AF%E3%83%AD%E3%83%80%E3%82%A4>

<https://www.zukan-bouz.com/syu/%E3%82%AF%E3%83%AD%E3%83%80%E3%82%A4>

논문 투고 일자 : 2019.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9. 08. 05.

＜要旨＞

水産物の名称に現れた残存日本語に関する研究

梁敏鎬

本論文は韓国の水産物の名称に残っている日本語の痕跡に注目し、特に韓国国立国語院の民族生活語調査のデータを活用し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漁業に携わっている人々の口述資料をもとに質的な分析を行い、その結果、様々な日本語の残存形態が水産物の名称の中に残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本論文の示唆点は次のとおりである。第一に、一般人は気づかないが、基層文化を形成している漁民が知っている表現が発見できたこと、第二に、水産物の名称の中に残されている日本語を分析することで、韓国と日本の文化接触による海域の基礎文化の形成過程がある程度究明できること、第三に、残存する日本語を通じて新しい学問分野である海域言語学の研究が可能となることである。尚、本稿では調査データと地域の限界性という点が存在し、後続の調査が必要となる。

A Study on Remaining Japanese in Sea products

Yang, Min-Ho

This paper analyzes the trace amounts of Japanese language that remain in the names of Korean fishing products.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people living in a Korean fishing village, were analyzed using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Everyday Korean Language Project Group. Japanese remained diverse in the names of fish products.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Find Japanese expressions (used in fishing products) that are well known by fishermen, who form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fishing culture, but are not understood by the average Korean.

– Analyze these examples to identify how these terms and expressions came to be standard within this industry, considering the regional and cultural connec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 The remaining Japanese languages used in the fishing villages have enabled a new field of study, called “sea region linguistics.”

The results of the survey data reveal regional limitations; therefore, similar research is necessary in the future.